

⑤ 益山郡誌(上) 古蹟 王宮塔條

在宮壇前。高十丈累石宛然俗傳馬韓時所築……一說云道說謂完山地理若隱狗形建塔于此以壓狗尾蓋爲麗太祖壓勝甄宣而塔成之日完山畫晦三日……

⑥ 이 資料中の 하나인 石塔과 同代의 石燈火舍石片(不等邊八角形)

一個는 扶餘博物館에 移管되었으며 其外의 主要舊石材는 塔前에 陳列되었다.

襄陽 禪林院址에 對하여

鄭 永 鎬

禪林院址는 江原道 襄陽郡 西面 黃耳里 米川谷①에 있는 寺址인데 一九四八年十月頃에 이 곳에서 貞元廿年銘 新羅梵鐘이 出土되어 더욱有名해 졌다. 그 후 銅鐘은 곧 五台山月精寺로 移管되었으나 六·二五動亂때 불(寺刹火災)에 녹아서 지금은 形便없는 그 殘片이 國立博物館에 保管되어 처음 發見當時의 기쁨 이상으로 슬픔만을 남겨 놓았다. 이 薄命의 新羅梵鐘과 그 出土地에 對하여는 恩師이신 李弘植教授께서 이 紹介하신 바② 있으니 再論을 避하고 여기서는 다만 其間 二次에 걸친 筆者의 現地踏查에서 倒壞된 數點의 石造遺物이 調査되어 當局에 依하여 復原됨으로서 原形을 볼 수 있게된 多幸스러운 經緯와 그 遺物等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昨年 三月初 筆者가 처음으로 이곳을 踏查하였을 때는 石物의 各部材가 原位置에서 흩어져 半쯤 土中에 묻혀 있는가 하면 石燈火舍石은 築臺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등 散亂하였으나 部材를 點檢 調査해 보니 復原이 可能함을 알 수 있어서 上京後 곧 當局에 報告하여 遺物과 寺址에 對한 文化財假指定으로서 爲先 保護措置를 取해 놓고 晩秋에 이르러 復原工事を着手, 二週日만에 完工하여 東·西九〇m 高三一四m 되는 石築위 約三千坪 넓이의 寺址에 三層石塔과 石燈, 浮屠, 弘覺禪師碑龜跌

및 螭首 등이 우뚝우뚝히 서게 되었고 이로써 이 遺物 四點은 文化財委員會의 決議에 따라 寶物로 指定되었으며 寺址一帶는 史蹟地로 保護를 받게 되었다.

一、寺址概況

麟蹄로 넘어가는 黃耳二里舊路에서 約一·五km 되는 米川谷 祖峰(標高一、〇八三m) 南麓에 築臺를 쌓은 臺地가 寺址인데 그 東便으로 法堂址가 있어 現在도 方形의 礎石(邊長 六〇cm)이 三、四m의 間隔으로 數個 묻혀 있음을 볼 수 있다. 西便에는 西北쪽으로 또 한 段의 石築을 쌓고 石燈을 세웠으나 그 곳에 法堂址로 推定되는 遺構가 없음을 注目되며 耕作地로 되어있는 寺址全域에서는 新羅下代로부터 麗代에 이르는 瓦片이 無數히 出土 發見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곳一帶를 發掘調査하여서 學術的인 研究를 進行시켰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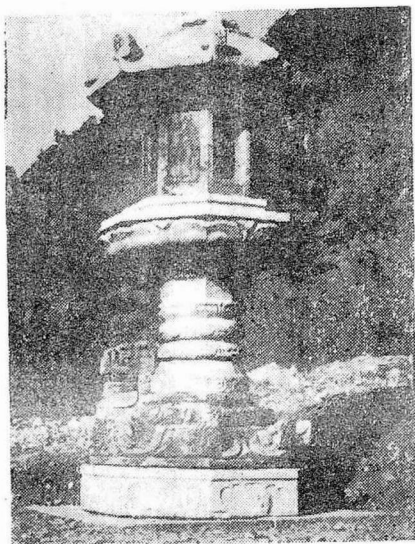
二、三層石塔

全高 約 五m인 典型的인 新羅式一般型의 石塔으로 法堂址 南側 六·五m 되는 原位置에 세워졌다. 二層基壇上에 塔身을 받고 있는데 下基에는 撐柱가 一柱 있고 甲石上面에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받침으로 上基를 받고 있으며 上基 各面은 撐柱 一柱로 兩區하여 八部衆 二驅轍을 陽刻하였고 甲石下面에는 副椽이 刻出되고 上面에는 角形받침 二段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塔身 上面에는 方形의 舍利孔(一九cm×一九cm)이 있는데 깊이 一〇cm에서는 圓形으로 되어 五cm가 더 깊어져 그 意匠이 注目되었다. (復原前調査) 各 屋蓋石의 받침은 五段씩이고 輕快하게 反轉된 四隅轉角에는 風磬小圓孔이 있으며 落水面은 平薄하게 흘렀고 上面二段의 角形받침으로서 그 위의 屋身을 받고 있다. 露盤까지는 完全하고 徑一〇·五cm의 擦柱圓孔이 있으며 그 위 相輪部는 不完한데 溪流邊에서 收拾하여 올려 놓은 것이다. 塔 앞에는 拜禮石이 一座 있는데 前面二區 側面一區의 眼象이 있을 뿐 上面에 蓮瓣等의 彫飾은 없다. 基壇部의 차임이나 各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되며 慶州 南山里 西三層石塔과 同系의 樣式이라 하겠다. 實測値는 (cm) 初層塔身高 八一·二層塔身高三〇·幅 八五·幅 七四

三層塔身高二五·五 初層屋蓋長一四五·五 三層屋蓋長一一五
 幅六六 二層 一三〇 露盤長 四三
 石六枚 下基面石八枚 上基面石八枚 이고 그 以上은 一石씩이다。復元工事前
 이 石塔基壇部에서 小塔六四基와 銅鐸一個가 收拾된 바에 對하여는
 이 紹介되었기에 省略한다。

三、石燈

四枚로 짜인 地臺石위에 現高二·九二m의 石燈이 놓여 있는데 上、
 中、下臺 모두 갖추고 火舍石、屋蓋等 完全히 具備 하였으며 彫刻도 優
 秀한 羅代絶品이라 하겠다。下臺側面에 八面마다 眼象이 있고 그 위 八
 瓣의 伏蓮石 八角에는 귀꽃彫飾이 있으며 上面에 雲紋과 一段의 높은
 괴임으로서 中臺를 받고 있다。中臺石은 中間에 橢圓形花瓣이 八處에
 配置된 鼓腹形을 彫刻하고 그 上、下部에는 對稱의 雲紋과 複葉八瓣
 의 蓮華紋을 彫飾하여 그 위 上臺를 받고 있는데 上臺石下面에는 圓弧의
 물딩과 上、下는 角形받침 二段이 刻出되어 있고 仰蓮은 複葉八瓣이
 더 上面에는 높은 괴임과 낮은 一段 角形받침으로 八角火舍石을 받고 있
 다。火舍石에는 四口의 火窓이 있는 外 各面마다 下部에 一區의 眼象이
 있어 特異한 樣式으로 注目되었다。屋蓋石은 下面에 圓弧와 角形二段이



있고 八角마다 轉
 角에 귀꽃이 彫飾되
 었으며 上面에는 複
 葉八瓣의 伏蓮이 있
 다。石燈全體의 樣
 式과 彫刻이 裝飾에
 흐른 것이어서 年代
 도 新羅下代의 作品
 인 開仙寺址石燈과
 同系로 보아 羅末로
 推定된다。實測値는
 (cm) 下臺石高二五·五
 一邊長五一

伏蓮石高五七·五 中臺石高七二 上臺石高三一 火舍石高六三 屋蓋高 四二
 一邊長四七 上下徑五五 徑一一八 一邊長二七 一邊長 五三
 이다。

四、弘覺禪師碑龜趺 및 螭首

現在 碑身은 그 下部의 殘片이 景福宮勤政殿廻廊에 保管되어 ④ 있고
 現地에는 一石으로 된 龜趺와 螭首만이 遺存하여 碑座위에 螭首를 놓았
 다。龜甲文은 六角으로 羅代의 通形이며 雲紋 위 碑座에는 伏蓮이 둘러져
 있고 左、右側面과 前、後에는 各一、三區씩의 眼象이 陰刻되었다。螭首
 는 下面에 碑座上面과 對稱으로 蓮瓣을 彫刻하였으며 雲龍紋으로 全體를
 滿彫하고 前面 中央에 三二·五cm x 三六·五cm의 裝飾의인 篆額을 마련
 하여 「弘覺禪師碑銘」이라는 六字를 一行으로 陽刻하였다。記錄에 依
 하면 弘覺禪師가 入寂한 後 光啓二年 即 新羅定康王元年丙午(八八
 六年A、D)에 이 碑石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면 이 石物에 彫刻
 된 蓮瓣이나 眼象 雲、龍文等 名部의 樣式手法은 年代가 確實한 것으로
 서 造形美術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될 것이다。實測値는 (cm) 龜趺高 七三
 碑座外緣 一〇〇 x 二七
 碑座內孔 八二 x 一五이다。

五、石造浮屠

方形的 地臺石과 八角下臺가 一石으로 되어 二枚로 構成된 위에 複葉
 八瓣의 伏蓮石이 놓였는데 下臺八面에는 眼象이 있고 그 中 四面에는 한
 쌍의 獅子가 彫刻되어 있으며 上面에는 낮은 角形과 圓弧의 물딩, 높은
 괴임으로서 中臺石을 받고 있다。圓形의 中臺와 上臺는 一石으로 되어
 있고 中臺에는 두마리의 龍이 雲紋속에 쌓였는데 龍鱗이나 頭部의 彫刻
 이 寫實的이라 하겠다。複葉八瓣仰蓮의 上臺上面에는 圓形의 二段角形
 받침이 있고 그 위 높은 八角形의 괴임과 낮은 받침이 있으나 그 뒷部
 分인 塔身과 屋蓋等은 아직 發見치 못하고 있다。앞으로 나머지 部材를
 收拾하여 完全히 復原했으면 좋겠다。眼象 및 蓮瓣의 樣式과 雲龍紋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되는데 或時 이것이 前述한
 弘覺禪師의 浮屠가 아닌가 생각된다。實測値는 (cm) 下臺高 一五·五 伏蓮石
 高三二 中臺高 四三·七 上臺高 二八·四이다。
 長四四 下徑六四·八 徑八五·九이다。

以上 禪林院址의 遺物調査結果를 略報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곳一帶의 發掘再調査가 있어서 各遺物의 詳細한 復原圖 및 遺址의 調査報告書로서 新羅寺院址의 研究를 整理할 機會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本調査에 많은 指導를 주신 黃壽永教授에 感謝의 말씀 드리며 現場踏查에 많이 協助해 준 同人 申榮勳氏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註 ① 襄陽邑內에서 二八km 되는 山間地域으로 이곳은 定期車便이 없는 徒步行路이다. 「주력」이나 「짚」車를 特別히 利用하면 車道는 運行可能하게 整地되어 있다.

② 李弘植…①貞元廿年在銘新羅梵鐘(國學論叢——白樂溥博士選甲記 念論文集)

③ 薄命의 新羅梵鐘(李弘植著 讀史餘滴)

④ 秦弘燮: 禪林院址三層石塔內發見小塔(美術資料第九號)

⑤ 日帝時 金石文을 蒐集한 때 (大正三年——一九一四年 A, D) 襄陽郡廳에 移搬된 此碑片이 發見되어 그 후 現位置에 移管되었는데 一四〇餘字의 碑文은 「朝鮮金石攷」「朝鮮金石總覽」에 紹介되었

다. ⑥ 二行의 陽刻字下部에는 三區의 小眼象이 있고 그 外周緣에는 流麗한 雲紋으로 彫飾하였다.

⑦ 「朝鮮金石攷」에 記錄이 있으나 그것도 大東金石書를 引用하였다. 한편 弘覺禪師에 對하여는 「朝鮮禪敎史」에서도 볼 수 있다.

仁川市景西洞 綠靑磁窯址發掘調査概要

崔 淳 雨

一

仁川市の 西郊 景西洞 山一四六番地 一帶에 古陶窯址가 있다는 事實은 一九四九年頃 當時의 仁川市立博物館長 李慶成氏에 依하여 發見되어 그所在가 仁川市勢一覽과 仁川의 古蹟(一九六〇——仁川市立博物館)에

도 收錄되어 있다. 仁川市立博物館은 一九六五年度의 調査事業으로서 山一四六番地의 一號보리밭안에 있는 同窯址의 一部를 發掘調査하기로 되었다. 이 發掘은 一九六五年 十二月十七일부터 二十三日까지, 一九六六年 三月二十八일부터 四月四日 까지, 四月十三일부터 四月十八日 까지 五月四일부터 五月七日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筆者의 指揮로 鄭良謨(國博)氏가 主로 現場을 擔當했으며 金宇一(仁川市立博物館長, 俞門龍(國博)氏가 이에 參加했다. 이 發掘에 對한 報告書는 앞으로 仁川市立博物館을 통해서 出刊될 豫定으로 되어 있으나 우선 그 概要를 傳해두고자 한다.

二

이번에 筆者가 綠靑磁라고 假稱한 이 窯址產의 磁器는 비교적 精選된 靑磁系의 質은 胎土위의 粗質의 綠靑色施釉를 한 것으로서 日本에서는 古來로 이러한 部類를 「이라보」 또는 「이라호」(伊羅保)라고 俗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의 前期와 後期 또는 李朝初에도 있었던 종류로서 이제까지 市中에 나도는 이 종류의 古墳出土品에 對한 學術的인 正確한 知見은 거의 없었다. 특히 이러한 部類의 靑磁中에는 그 器皿樣式과 手法으로 보아 本格的인 高麗靑磁의 成立에 先行하는 一種의 先驅的靑磁로 인정되는 類型이 있음으로 해서 關心이 깊었고 따라서 이번 窯址調査에서는 이 窯址出土破片에 對한 樣式的인 考察을 통해서 얻어질 이러한 粗質 綠靑磁釉系의 編年과 樣式 및 技術系譜에 對한 學術的知見 그리고 韓國古陶窯의 構造樣式과 그 規模를 밝히는 일이 期待되었다.

三

이 景西洞 山一四六番地 一帶는 西向한 앞은 丘陵地帶로서 鹽田과 바다가 연이어져 있는 곳이다. 이번 發掘한 山一四六의 一番地는 이 丘陵을 깎아서 만든 보리밭임으로 丘陵과 밭사이에는 작은 斷層이 생겼고 이번 檢出한 窯床과 陶磁破片堆積層은 약간 傾斜진 이 보리밭을 가로질러 丘陵斷層위에까지 걸쳐져 있어서 이 斷層때문에 窯床의 中間이 약간 끊겨져 있었다.